

뉴스홈 | 최신기사

문대통령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정당화 안돼...경제제재 동참할 것"(종합)

송고시간 | 2022-02-24 16:50

中文

FRANÇAIS

日本語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우려하던 무력침공 발생, 유감스럽다...대화로 해결해야"

"우크라이나 주권·영토보전·독립 보장돼야...재외국민 안전확보 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사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제재 동참을 선언

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전면전으로 본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면전 여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부처를 향해서도 "긴장상태를 유지해달라"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위해 민간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만 교민 안전확보 방안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때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은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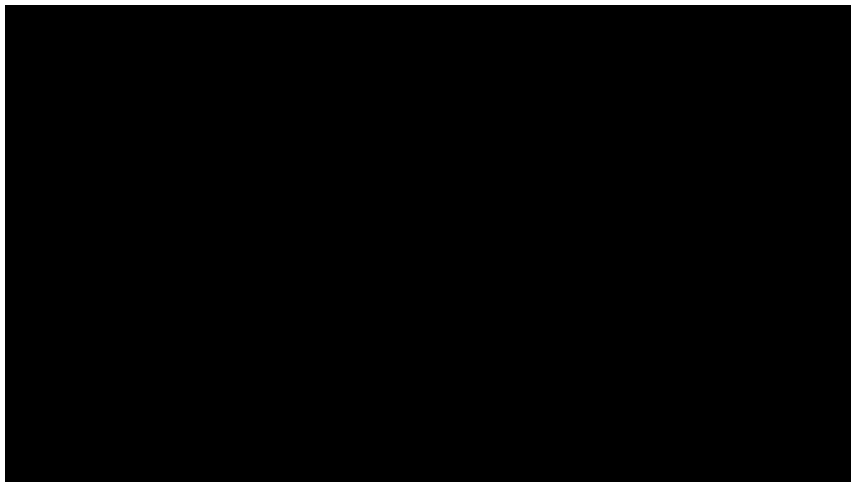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22.2.24 2022331@yna.co.kr

hysup@yna.co.kr

kjpark@yna.co.kr



유튜브로 보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6:50 송고



달신출판사
LOTTE CASTLE
www.lotte.or.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408 Request Time-out

Your browser didn't send a complete request in time.

댓글 많은 뉴스

1
137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2
60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3
60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4
5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
39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콩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